

[유통]

김명주
 02-3774-1458
 myoungjoo.kim@miraeasset.com

유통

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

유통 코멘트

11번가, 3Q19 흑자 달성 <https://bit.ly/2PAjxll>

- 3Q19, 매출 1,405억원 (-13% YoY, -4% QoQ), 영업이익 3억원 기록
- 11번가는 1) 직매입 축소와 2) 쿠폰 축소 등을 통해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
- 그러나 프로모션 축소에 따라 시장 내 M/S는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
- 1H19 시장 내 M/S 8.6% -> 1~8월 기준 7.8% 기록 (와이즈앱 기준)
- 향후 11번가가 수익성 중심의 경영 지속 시 M/S 감소는 불가피
- 현재 11번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부재하고 1) 포털 사이트의 커머스 강화와 2) 쿠팡의 오픈마켓 비즈니스 강화, 그리고 3) 온라인 내 다양한 유통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
- 향후 11번가는 1) 오픈마켓 플랫폼의 단점 개선(ex 판매자 낮은 신뢰도 등)과 2) 계열사와의 시너지(ex SK Pay)를 통해 충성고객 및 경쟁력있는 셀러 확보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
- 11번가 뿐 아니라 이베이 등 오픈마켓 비즈니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
- 이는 1) 오픈마켓 비즈니스의 진화와 2) 온라인 플랫폼 간 경쟁 지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

전일 주요 뉴스

- 공정위,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하여 시행. 적용 시기는 20.1.1일. 지침 시행 시 백화점 주도 세일 시 할인 행사 비용 중 절반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함 <https://bit.ly/2BZvBv6>

- Walmart, 미국 내 2,000여개 픽업 매장에서 주류 또한 다른 구매 제품과 픽업 가능하도록 픽업 카테고리 확대 <https://tcrn.ch/2PFtdSa>

① 호텔신라 (전일주가 -1.15%)

- 신라면세점, 온오프라인 광군제 프로모션 진행 <https://bit.ly/2Ntd8fH>

② 현대백화점 (전일주가 -0.94%)

- 현대백화점 면세, 11.1~22일까지 오픈 1주년 감사 행사 진행 <https://bit.ly/3348mvl>

③ 롯데쇼핑 (전일주가 +0.81%)

- 롯데백화점, 파트너사들 매장에 임대료 상(기존 매출의 120%)/하한제(80%) 도입. 현재 F&B 매장에 도입하고 있으며 확대 여부는 미확정 <https://bit.ly/2NxlodP>

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

종목명	티커	투자의견	목표주가	주가	시가총액 (십억원)	성과(%)				
						1W	1M	3M	YTD	1Y
롯데쇼핑	023530	Trading buy	162,000	124,500	3,522	-0.4	-3.5	-8.5	-41.0	-35.7
이마트	139480	매수	190,000	111,500	3,108	-3.5	-1.3	-8.6	-38.9	-45.5
호텔신라	008770	매수	100,000	77,500	3,042	-1.9	-10.1	-1.5	1.3	8.7
신세계	004170	매수	360,000	236,000	2,323	1.9	-10.1	-6.9	-7.8	-8.7
롯데하이마트	071840	Trading buy	42,000	30,250	714	-0.5	0.8	-17.6	-35.2	-46.1
현대백화점	069960	매수	95,000	73,900	1,729	-2.9	-5.4	-0.3	-18.3	-14.8
GS리테일	007070	매수	48,000	38,250	2,945	-5.3	-7.3	2.5	-5.6	6.5
BGF리테일	282330	매수	262,000	178,000	3,077	-5.3	-9.6	-13.0	-12.7	5.6

주: 2019.10.31일 기준, 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

이름	티커	시가총액		수익률					P/E(X)		P/B(X)		ROE(%)	
		Local	USDmn	1W	1M	3M	YTD	1Y	19F	20F	19F	20F	19F	20F
롯데쇼핑	023530 KS	3,522	3,014	-0.4	-3.5	-8.5	-41.0	-35.7	13	11.3	0.3	0.3	2.4	2.7
이마트	139480 KS	3,108	2,660	-3.5	-1.3	-8.6	-38.9	-45.5	16.5	12.5	0.4	0.4	2.2	2.9
호텔신라	008770 KS	3,042	2,603	-1.9	-10.1	-1.5	1.3	8.7	19.9	16.4	3.4	2.8	19.2	19.8
신세계	004170 KS	2,323	1,989	1.9	-10.1	-6.9	-7.8	-8.7	11.7	8.8	0.5	0.5	18.5	6.2
롯데하이마트	071840 KS	714	611	-0.5	0.8	-17.6	-35.2	-46.1	8.5	7.8	0.3	0.3	4.1	4.4
현대백화점	069960 KS	1,729	1,480	-2.9	-5.4	-0.3	-18.3	-14.8	8.2	7.2	0.4	0.4	5.0	5.4
GS리테일	007070 KS	2,945	2,521	-5.3	-7.3	2.5	-5.6	6.5	19.8	16.5	1.3	1.2	6.9	7.9
BGF리테일	282330 KS	3,077	2,633	-5.3	-9.6	-13.0	-12.7	5.6	18.8	16.6	4.8	4.0	28.3	26.3
Walmart	WMT US	335,910	335,910	-0.8	-0.5	7.0	26.8	17.8	24.0	23.0	4.5	4.3	18.9	18.9
Kroger	KR US	19,832	19,832	-0.8	-4.0	16.9	-10.0	-16.9	11.3	10.7	2.0	1.8	20.2	17.8
Costco	COST US	131,827	131,827	0.9	4.1	8.8	47.2	31.1	37.0	34.8	8.9	7.6	26.5	23.4
Target	TGT US	55,145	55,145	-2.1	1.0	24.9	63.3	29.1	17.4	16.3	4.6	4.3	27.1	27.1
Macy's	M US	4,671	4,671	-1.8	-2.7	-33.5	-49.2	-55.9	5.5	6.0	0.7	0.7	13.1	11.0
Bestbuy	BBY US	19,162	19,162	0.8	5.4	-5.0	37.3	3.6	12.6	12.0	5.7	5.7	44.3	44.8
Nordstrom	JWN US	5,455	5,455	-2.9	4.6	6.3	-24.5	-46.5	10.7	10.5	5.9	9.6	54.0	60.9
Ocado	OCDO LN	9,105	11,785	-1.0	-1.4	4.7	65.1	52.5	-	-	18.8	21.4	-20.6	-14.3
Isetan Mitsukoshi	3099 JP	344	3,173	-2.7	0.7	0.0	-28.6	-34.3	24.5	18.2	0.6	0.6	2.5	3.1
Takashimaya	8233 JP	224	2,072	1.6	0.2	0.7	-10.1	-29.1	10.8	12.1	0.5	0.5	4.7	3.8
Seven & I holdings	3382 JP	3,634	33,562	-3.3	-0.8	10.0	-14.3	-16.2	17.0	15.5	1.4	1.3	8.3	8.6
Familymart	8028 JP	1,366	12,619	-6.1	2.4	15.7	-22.5	-17.8	26.8	25.9	2.3	2.2	8.7	8.4
Lawson	2651 JP	600	5,539	-2.4	8.1	9.7	-14.0	-16.2	31.4	22.9	2.2	2.1	6.8	9.2

주: Local은 십억원, 십억엔, 백만달러임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신세계, GS리테일, 호텔신라, 롯데쇼핑, 이마트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지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